

# 수도권 근교농촌의 삶의 질 평가

김봉원 \* · 김유일 \*\*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강사 ·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An Evaluation for Quality of Life in Seoul Metropolitan's Countryside

Kim, Bong-won \* · Kim, Yoo-ill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of Life with a sample set collected from 377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s countrysid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regression analysis.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had a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self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come satisfaction' and other variables( $R^2 = .48$ ). The residents who strongly satisfied with those variables were likely to satisfy with their life. Also, the existence of myon office and the educational level emerged as a significant factors for the life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residents located at myon office or educated higher level satisfied more on their life. Thu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attributes played a basic role on the life satisfaction.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methodological and analytical weaknesses of this study are identified.

#### I. 서론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근교농촌은 도시의 광역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근교농촌의 경우 다른 대도시권의 근교농촌보다 도시와의 관련성이 높아 도시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 근교농촌중 비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은 비농업지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는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환경계획과 설계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 거주민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이들 인자의 정책적 시사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이슈

60년대 이후부터 경제 개발된 국가에서 「삶의 질」이란

제목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초기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삶의 경제적 측면(개인당 평균소득등의 변수)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표준화된 객관적·인구사회적 변수(인구의 증가나 이동, 교육, 정치참여도 등)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으로 연결되어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중반에 사회지표가 도입되었는데(김귀곤, 1990, p129), 국내 연구를 연구 대상과 연구 목적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면 지표 개발 및 사회 개발의 정책 수단과 도시간 비교나 지역간 비교, 농촌 복지와 농촌의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유일의, 1994).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지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지표, 환경지표와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하여 가상적 모델을 제시하거나 하위관심 영역으로 간주되는 부문에 대해 객관적 통계자료를 2차 가공하여 도시 및 지역간 비교를 시도하거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각 부문별 만족도 및 중요도를 산출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지표와 관련하여 삶의 질 또는 행복이란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지표운동은 단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는 객관적 자료들만 평가함으로써 정작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삶의 질을 평가하지는 못한다는 점과 사람들의 행복감은 반드시 객관적 부나 생활조건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의 한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삶은 개인 수준인데 반해 지표는 국가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경제 또는 사회적 지표들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국가경제의 지표가 개인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객관적 지표로서 인구당 의사수는 건강수준이나 의료혜택을 나타내는데 충분치 않으며, 주관적 척도가 직접적이고 다양한 관심사와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주관적 척도는 부가되는 사회문제나 관심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객관적 척도는 공공기관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고 수행되므로 의사결정목표에 정형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Beesley & Russwurm, 1989).

주관적 복지에 관한 국내 연구(신도철, 1981; 김동일, 1982)는 거의 없었으나 조완규(1992), 조명한(1993, 1994) 등에 의해 한국인의 주관적 복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농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측면으로 인생만족도를 파악하고, 소외감과 같은 사회 심리적 변인들을 다룬 김동일의(1982) 등의 연구와 농촌 성인을 대상으로 인생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였던 송병국의 연구(1987)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외 조완규(1992)가 전국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민들의 인생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김유일의(1994)는 경기도의 농촌을 지역에 따라 전형적 농촌과 근교농촌으로 구분하여 사례지역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삶의 질과 주거환경 전반을 평가하였고, 두 사례지역의 차이를 비교한 바 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여러 학자의 관점과 학문 영역에 따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하여 지표설정 기준이 무엇이나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Liu(1975)의 경우 삶의 구성요소를 경제, 정치, 환경, 사회, 건강과 교육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Campbell 등.(1976)은 가족생활, 결혼, 재정상태, 주택, 직업, 친구 등의 17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Boyer와 Savagan(1981)은 기후, 주택, 건강, 범죄, 교통, 레크레이션, 예술, 경제, 교육의 9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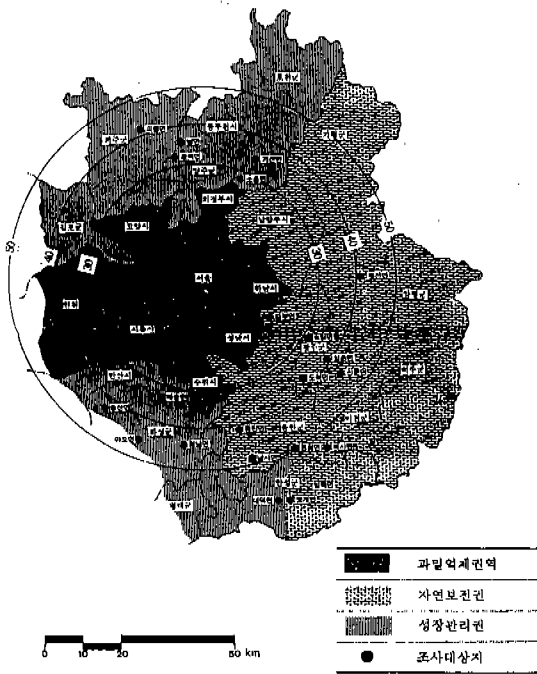
결국,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영역은 연구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과 관련하여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판단이므로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인생만족에 크게 관련될 수 있다. 대체로 인생의 각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전반적 만족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영역이 인생만족과 큰 관계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Campbell et al., 1976).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영역만족도 주관적이고 인생만족도 주관적이므로 방법 분산이 개입된다. 즉, 각 영역별 만족이 인생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인생만족의 결과로 볼 수 있다(Diener, 1984).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 영역별 만족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 및 객관적 환경속성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지 선정

연구 대상지 선정은 농어촌 진흥공사가 1991년 전국의 정주권 개발대상지 면을 통계자료 35개 변수를 사용하여 유형 분류한 결과<sup>1)</sup>를 토대로 하였다. 연구대상지 및 조사 가구와 응답자를 선정하기 위한 표본은 확률표집으로 단순 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과 다단계층화 집락표집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9개 군으로 양주군 2개면, 화성군 5개면, 파주군 1개면, 광주군 4개면, 포천군 2개면, 양평군 1개면, 이천군 1개면, 용인군 3개면, 안성군 2개면으로 총 21개 면이다(그림 1).



〈그림 1〉 조사대상지의 위치

## 2. 자료 수집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먼저 각 군통계연감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에 적합한 2

차 자료로 가공하였다. 설문조사는 1995년 10월 14일과 20일 21일로 가구주가 대부분 가정에 있는 공휴일(토·일요일)을 선택해 사전에 교육된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학생을 조사원으로 호별 방문에 의한 설문 조사(표준화된 양식)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자기기입식과 자기기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면접식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총 398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응답경향이 편이된 설문지는 제외시켜 37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객관적 속성변수(objective environmental attributes)와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삶의 질 영역변수(assessment of quality of life)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속성변수는 수도권정비법상의 권역구분, 서울까지의 거리, 군청까지 거리, 면소재여부, 인구밀도, 토지이용율, 인구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율을 산출하여 이를 분류하고,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및 조사가구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농가여부, 가구유형, 년 소득(농가소득, 비농가소득) 등을 조사하였다. 삶의 질 영역별 평가 변수는 주거, 건강, 직업, 여가, 자아, 생활 수준, 가족 생활, 교육 수준, 소득수준만족으로 삶의 질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을 7점척도의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인생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였다.

##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PC+(ver. 5.0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다변량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여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설명력과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1. 요인분석한 결과 11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를 군집 분석하여 8개 유형으로 면 지역을 분류하였다. 이 중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제 1 유형은 '수도권 비농업지대'로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고 도로 교통이 발달하였으며, 80년대에도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 인구밀도가 조밀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업종사율이 낮아 2·3차 산업종사율이 높아 농외소득비율이 높으며, 소득 수준과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 조사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조사대상지의 인구특성과 토지이용을 조사한 결과(표1), 군청까지의 거리가 1-10km인 지역이 10개면, 11-20km인 지역이 6개면이었고 21km이상인 지역이 5개면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지의 10년간('85-'95)의 인구변화는 감소하는 지역이 12개면으로 이들 지역중 중부면, 마도면, 동탄면, 파평면의 인구감소율이 높았으며(-18.0이상) 포천군(63.5), 소홀면(36.7)은 아주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0년간 세대증가율은 감소지역이 1개면, 10-20%인 지역이 4개면, 21-50% 지역과 51-80%인 지역이 각각 7개면, 80%이상인 지역도 2개면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권역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서울에서의 거리(반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40km이내인 지역이 대체로 높은 인구증가

율을 보였고 40km이상의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수 증가와 세대수 증가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세대는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대가족이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나 이주민의 유입을 감안할 때, 외부적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1985-'90년 사이에 인구밀도는 높아졌으나, '1990-'95년 사이에는 인구밀도가 낮아졌다. 이는 80년대 후반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역의 인구적 특성 변화뿐만 아니라 1995년 현재의 인구밀도를 살펴보더라도 100이하인 지역(중부면, 옥천면), 100-200인 지역(마도면, 파평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남사면, 원삼면, 외사면, 보개면)과 200이상인 지역(남면, 광적면, 매송면, 송산면, 정남면, 동탄면, 가산면, 소홀면, 신둔면, 대덕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법상의 권역

〈표 1〉 조사대상지의 지역적 특성<sup>2)</sup>

군	면	리	군청까지의 거리; Km	인구밀도b)	비농업용 토지이용률c)	10년간 세대 증감율d)	10년간 비농업용 토지증감율e)
양주군	남면	경신리	21이상	200 이상	2.6이상	51-80	증가
	광적면	가남리a)	11-20	200 이상	2.6이상	51-80	증가
화성군	매송면	송나리	21이상	200 이상	2.5이하	21-50	감소
	마도면	고모리	21이상	101-200	2.5이하	10-20	증가
	송산면	고정리	21이상	200 이상	2.6이상	21-50	증가
	정남면	고지리	1-10	200 이상	2.6이상	51-80	증가
	동탄면	금곡리	1-10	200 이상	2.6이상	10-20	감소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a)	11-20	101-200	2.5이하	10-20	감소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a)	1-10	101-200	2.5이하	81이상	증가
	실촌면	건업리	11-20	101-200	2.5이하	51-80	증가
	도척면	궁평리	11-20	101-200	2.5이하	51-80	감소
	중부면	황지원리a)	1-10	100 이하	2.5이하	감소	감소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1-10	200 이상	2.6이상	51-80	증가
	소홀면	무림리	1-10	200 이상	2.6이상	81이상	증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10	100 이하	2.5이하	10-20	감소
이천군	신둔면	고척리	1-10	200 이상	2.5이하	51-80	증가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	11-20	101-200	2.6이상	21-50	증가
	원삼면	가좌월리	11-20	101-200	2.5이하	21-50	감소
	외사면	가좌리	21이상	101-200	2.5이하	21-50	증가
안성군	보개면	가사리a)	1-10	101-200	2.5이하	21-50	감소
	대덕면	건지리a)	1-10	200 이상	2.6이상	21-50	증가

a) 면소재리

b) 인구밀도는 전체 면적/인구수로 계산하여 분류.

c) 비농업용 토지이용률은 전체면적/비농업용토지이용(대지+공장면적)으로 계산하여 분류함.

d) 10년간 세대증감율(85-95년); 군통계연감에서 인구는 감소하지만 세대수는 증가함에 근거하여 인구증가율은 사용하지 않았음.

e) 10년간 비농업용토지이용률(85-95년); c)의 수치

2. 통계자료는 각 군 통계연감(85,95년)을 사용하였으며, 포천군과 이천군은 94년 자료를 사용.

에 따라 인구밀도가 100이하인 면이 2개면으로 자연보전권에 속하며, 101-200인 면은 9개면으로 자연보전권(5개면)과 성장관리권(4개면)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이상인 면은 10개면으로 그중 9개면이 성장관리권 지역에 해당되어 자연보전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지의 토지이용변화는 '85, '90, '95년의 군통계 자료를 농업용 토지이용(전+답+과수원)과 비농업용 토지이용(대지+공장면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0년간('1985-'95)의 농업용 토지이용률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매송면과 보개면이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비농업용 토지이용률('1985-'95)은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매송면과 보개면은 감소하였고, 양주군(남면, 광적면), 화성군(정남면), 포천군(가산면)은 뚜렷한 증가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농업적 토지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비농업적 토지이용률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으나, 매송면과 대덕면의 경우 농업적 토지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비농업적 토지이용률도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지는 농어촌진흥공사(1991)의 분류 특성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는 농어촌진흥공사의 분류 자료는 1990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여러 요인을 결합하여 유형화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인구밀도와 비농업적 토지이용률이 높아 수도권 근교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응답자 및 조사가구의 인구적 특성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을 가족 지위, 성별, 교육 수준, 종교, 연령, 직업별로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는 가장이 197명(52.3%)이고, 주부가 118명(31.3%)이었으며, 기타가 62명(16.4%)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가 235명(62.3%), 여자가 142명(37.7%)으로 남자 응답자가 여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전체적으로 가장과 주부가 315명(83.6%)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조사 가구를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138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83명(22%), 72명(19.1%)이며, 무학의 경우가 24명(6.4%)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문학교 이상(대학 이상 포함)도 59명(15.6%)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이 142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와 불교 신자가 각각 85명(22.5%)과 90명(23.9%)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는 36명(9.5%)으로 나타났다. 유교는 15명(4%)이었고 기타는 5명(1.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31-40세의 연령층이 103명으로 전체의 27.3%였으며, 41-50세의 연령층이 그 다음으로 71명(18.8%)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연령층은 130명(34.4%)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으며 30세 이하의 연령층은 73명(29.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78명으로 전체의 4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농업 이외의 직종으로 전문직 26명(6.9%), 사무직 19명(5%), 관리직 16명(4.2%)으로 나타나 고급 관리 직종이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판매직, 서비스직이 각각 16명(4.2%), 17명(4.5%)으로 나타났고, 생산직과 노동직이 20명(5.3%), 9명(2.4%)으로 나타나 농업 이외의 직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가 76명(20.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부와 학생 등의 응답자와 직업이 무직이거나 은퇴한 고령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응답자 가구 유형은 가족 가구와 성인 가족 가구가 33.2%, 22.1%를 차지하고 대가족 가구와 성인 대가족 가구가 18.1%, 4.3%로 나타나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의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단독 가구가 12.4%, 혼합가구가 10%를 차지하였다.

전체 가족 수는 3-4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2명 이하인 가구가 14.5%이고, 5-6명의 가족 수를 가진 가구가 32.3%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7명 이상이 가구도 8.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가구의 평균 가족 수는 4.3명이었다(표 2).

조사가구의 년 소득은 1994년의 조수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고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으로 구분하였다(표 3). 농업 소득과 비농업소득을 합한 농가의 년 소득은 년1000-1500만원 대가 25.1%로 가장 많았고, 년1500-2000만원 대가 17.9%, 2000-3000만원 대가 22.6%를 보이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도

14.4%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1000만원 미만의 소득 계층도 20%로 나타났다. 농업 소득은 1000-1500만원 대가 31.5%, 500-1000만원 대의 소득 계층이 18.8%로 나타나 농업 소득이 대체로 년 500-1000만원 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500만원 이상의 농업소득 계층이 17%를 차지한 반면에 500만원 이하의 농업소득도 14.4%를 차지하였다.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 모두에 응답한 농가를 겸업 농가로 간주할 때 겸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1/3정도이다. 겸업농가의 경우, 비농업소득이 1000-1500만원 대가 35.1%를 차지하고 500-1000만원 대가 26.6%로 나타나 비농업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가가 전체 가구의 40.5%였으며, 1000-2000만원 대의 년 소득이 55.6%이고 년 2000천만원 이상이 27.8%를 보여 소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1000만원 대 이하의 소득 계층이 16.5%를 보이고 있어 소득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소득 분포는 농업 소득의 분포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소득의 분포는 1000-1500만원 대의 소득 계층이 25.9%, 년 1500-2000만원 대가 22.0%, 년 2000-3000만원 대의 소득이 21.6%로 대부분이 년 1000-3000원대의 소득수준을 나타내었다. 3000천만원 이상의 년 소득이 10.3%인 반면에 1000만원 이하 대의 년 소득이 18.6%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 3. 삶의 질 평가

「삶의 질」에 대한 종속변수로서 인생만족도와 건강, 주거환경, 직업, 여가, 소득, 가족 생활, 생활 수준, 교육 수준,

〈표 2〉 응답자 및 조사가구의 인구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응답자	가장	197(52.3)
	주부	118(31.3)
	기타	62(16.4)
성별	남	235(62.3)
	여	142(37.7)
교육수준	무학(문자해독)	24( 6.4)
	초등학교	83(22.0)
	중학교	72(19.1)
	고등학교	138(35.6)
	전문학교	22( 5.8)
	대학교이상	37( 9.8)
	한학	1 (0.3)
종교	기독교	85(22.5)
	천주교	36( 9.5)
	불교	90(23.9)
	천도교	3( 0.8)
	원불교	1( 0.3)
	유교	15( 4.0)
	없다	142(37.7)
	기타	5( 1.3)
연령	20세 미만	16( 4.2)
	21-30세	57(15.1)
	31-40세	103(27.3)
	41-50세	71(18.8)
	51-60세	51(13.5)
	61-70세	54(14.3)
	71세 이상	25( 6.6)
	직업	농림업
전문직		26( 6.9)
관리직		16( 4.2)
사무직		19( 5.0)
판매직		16( 4.2)
서비스직		17( 4.5)
생산직		20( 5.3)
노동직		9( 2.4)
기타		76(20.2)
가구유형		단독가구
	가족가구(18세 이하 자녀)	123(33.2)
	성인가족가구(18세이상자녀)	82(22.1)
	대가족가구	67(18.1)
	성인대가족가구	16( 4.3)
	혼합가구	37(10.0)
가족수	1-2	54(14.5)
	3-4	166(44.7)
	5-6	120(32.3)
	7-8	26( 7.2)
	9 이상	5( 1.3)

〈표 3〉 조사가구의 년소득 분포

(단위: 만원)

변수	구 분						전 체
	500이하	500-1000	1000-1500	1500-2000	2000-3000	3000 이상	
농가농업소득	26(14.4)	34(18.8)	57(31.5)	30( 8.0)	26( 6.9)	8( 2.1)	181(100.0)
농가비농업소득	13(13.8)	25(26.6)	33(35.1)	9( 9.6)	8( 8.5)	6( 6.4)	94(100.0)
농가소득 <sup>a)</sup>	11( 5.6)	28(14.4)	49(25.1)	35(17.9)	44(22.6)	28(14.4)	195(100.0)
비농가소득	4( 3.0)	18(13.5)	37(27.8)	37(27.8)	26(19.5)	11( 8.3)	133(100.0)
전체 년소득 <sup>b)</sup>	15( 4.6)	46(14.0)	85(25.9)	72(22.0)	71(21.6)	39(10.3)	328(100.0)

a) 농가소득은 농가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을 합산한 년 소득  
 b) 전체소득은 농가소득과 비농가소득을 합산한 년 소득

자아 만족의 삶의 질 영역별 변수는 매우 만족 7점, 매우 불만 1점의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된 결과(표 4),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인 항목은 가족 생활 만족으로 평균값이 5.06였으며, 주거 환경은 평균값이 4.40의 수준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 만족이 4.28, 직업 만족이 4.24, 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이 4.22로 나타나 이들 영역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을 나타낸 항목은 여가 3.86, 소득이 3.74, 교육 수준이 3.65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교농촌의 주민은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과 가족 생활과 건강, 직업, 생활 수준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여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었다. 인생만족은 평균값이 4.23으로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표 4〉 삶의 질 영역별 평가 : 빈도분석

(N=377)		
변 수	Mean	Std. Dev.
주거만족	4.40	1.24
건강만족	4.28	1.48
직업만족	4.24	1.34
여가만족	3.86	1.40
소득만족	3.74	1.34
가족생활만족	5.06	1.30
생활수준만족	4.22	1.24
교육수준만족	3.65	1.51
자아만족	4.05	1.39
인생만족	4.23	1.28

인생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각 영역 만족도, 객관적 환경속성과 개인적 특성 변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독립변수들이 회귀방정식에 추가되는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인생만족을 설명하는 회귀식은 F값 49.55에서 유의도 0.00으로 높은 타당성을 보였으며, 예측변수는 직업만족, 자아만족, 주거만족, 소득수준만족, 가족생활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업만족의 R2 값이 3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각 예측변수의 T값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했으나 교육수준(대학교 이상)만이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인생만족도에 대한 전체 예측변수의 설명력은 48%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값)는 직업만족(0.29), 자아만족(0.23), 주거만족(0.19), 소득수준(0.14)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냈으며 인생만족 예측변수중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이 가장 큰 중요성을 보였다. 이는 여러 연구(Campbell et al, 1976; Knox, 1981; 조완규, 1992; 김유일의, 1994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이들 영역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뜻한다.

〈표 5〉 삶의 질 예측변수 : 단계적 회귀분석<sup>a)</sup>

변 수	B	SE B	Beta	T	(N=377)	
					Sig. T	RSQ change
직업만족	.28	.04	.29	6.60	.00	.31
자아만족	.21	.04	.23	4.98	.00	.41
주거만족	.20	.04	.19	4.47	.00	.44
소득만족	.14	.04	.14	3.47	.00	.46
가족생활만족	.10	.04	.11	2.56	.01	.47
면소재 여부(D) <sup>b)</sup>	.26	.10	.11	2.11	.01	.48
대학교 이상(D) <sup>b)</sup>	1.97	.94	.10	.81	.04	.48
(Constant)	.20	.24		.08	.42	

a) Listwise deletion of missing data  
b) D ; Dummy variable

이외, 지역의 환경적 속성으로 면소재지에 거주하거나 개인적 특성 변수로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인생에 만족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과 지역의 객관적 환경속성변수가 인생만족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개인의 특성과 맥락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적 수준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수도권 근교농촌의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특성과 지역특성 및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근교농촌의 주민들은 주거, 가족생활, 건강, 직업, 생활수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여가, 교육, 소득수준에는 불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다.

둘째, 삶의 질 관련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인생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로 직업만족, 자아만족, 소득수준만족, 가족생활만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beta값도 긍정적 관계에 있어 이들 영역변수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중 직업만족은 소득수준만족과 가족생활만족보다 두 배이상의 영향력을 나타내 직업만족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인생만족의 가장 큰 예측변수로 직업만족이 나타난 것은 한편으로는 근교지역의 직업이 다양해 졌다는 점과 소득수준만으로 삶의 질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만족이 인생만족과 결부된다고 판단할 때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는 정책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인생만족의 예측변수로 객관적 환경속성인 먼소재여부와 개인적 특성변수인 교육수준이 나타나 개인적 특

성 및 지역의 객관적 속성에 따라 삶의 질적 수준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삶의 질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객관적 속성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로 비교적 동질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대상으로 하였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족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농촌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에서 객관적 환경속성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크다.

다만, 본연구는 만족도를 중심으로 주민의 태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기에 총체적인 삶의 질을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객관적 속성을 주관적 척도로 조사된 종속변수를 보완한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을 계량화하여 그 수준을 확인하고 주관적 지표와 비교하거나 주·객관적 지표를 통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인구변화와 토지이용변화가 심각한 수도권 근교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른 대도시권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 권용우, (1994). 「수도권과 주택문제」 성신여대 출판부
- 김귀곤, (1990). “도시 삶의 질의 지표에 관한 연구 (1)-서울과 동경의 문화간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18(2).
- 김동일·심재용·강철인, (1982). 「한국농민의 삶의 질 -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선기, (1987). “사회복지지표의 설정 및 가치기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4), 1-15.
- 김영성, (1980). “한국의 도시간 생활환경 차이에 대한 소고”, 경희대 지역개발논문집 10호.
- 김유일·김봉원·김한도, (1994). “농촌주거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 대한국토계획학회지, 29(2).
- 김인숙, (1992). “한국 농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I)”, 농촌생활과학회지
- 김일철·김태현·김홍주, (1993).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1992년 한국농민의식조사」 서울대출판부
- 김홍래, (1974).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지표에 관한 상관고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남궁용근, (1975).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지표에 관한 상관고찰”, 국토계획 10(1), 31-44.
- 노자경, (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 및 관련 변수 연구 - 경기도 용인,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노자경외, (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관한 연구 -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농촌생활과학회지.
-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1991), 「정주생활권 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 면단위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어촌 진흥공사 연구보고서
- 서연섭, (1984). 「충남지역 도·군간 생활의 질의 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서홍승, (1989). 「사회지표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송병국, (1987). 「농촌 성인의 생활만족도와 그 관련 요인」 서울대 석사논문
-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5월호, 26-47.
- 엄문자, (1985). “농가의 경제적 복지와 소비구조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 여영부, (1993). 「한국농촌사회연구」 유포출판사



20. 오인환, (1992). 「사회조사방법론 - 오차요인 집중분석」 나남
21. 이순목, (1995). “삶의 질의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79-112.
22. 정지용외 3인, (1978). “복지농촌의 사회문화적 구성요인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0(1), 1-10.
23. 조명한, 최명, 이천표, 김상균, 김정오(1993). 「정보화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4. 조명한, 김경동, 강현두, (1994). 「정보화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I」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5. 조완규, (1992).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6. 중앙일보, (1995). 「전국 74개시 비교평가자료집 - 삶의 질 입체분석」 중앙일보사.
27. 체육회외, (1992). “전북 지역 농어산촌 주부의 가정생활요구도에 따른 가정생활 복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57. 대한가정학회지.
28. 하재홍, (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9. 한국도시연구소, (1995). 「수도권 들여다보기」 한울.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도시생활의 질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31. 현오석, (1976). “생활의 질의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4.
32. 홍동식, (1983). “농촌 부락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사회구조적 관련요인”,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사회조사연구 2(1).
33. 홍숙기, (1995).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나남
34. Andrews, F. M., and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35. Beesley, K. B., and Russwurm, L. H. (1989).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Toward Synthesis, Environment 20(1), 22-39.
36.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124.
37. Campbell, A., Converse, P. E., and Rodgers, W. L. (1981).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38. Coffin, R. J., and Lipsey, M. W. (1981). ‘Moving Back to the Land: An Ecologically Responsible Lifestyle Change’, Environment and Behavior 13(1), 42-63.
39. Knox, P. A. (1976). Social Well-being and North Sea Oil : A Application of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Regional Studies vol 10.
40. Liu Ben-Chich. (1975). Quality of Life: Concept, Measure and Result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34(1), 1-13.
41. Peck, C., and Stewart, K. K. (1985).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Quality of L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4), 363-372.
42. Wish, N. B.(1986). Are We Really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Well-being has Subjective dimensions, as well as abjective One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5(1), 93-99.